

김철운

한국물가협회장

“동북아 물가정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중심국가 이끌 것”

지난 1973년 한국물가협회를 설립하고,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철운 회장은 물가정보 서비스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물가정보를 담은 월간 <물가지표>를 발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 1986년에는 물가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국통신(현 KT)과 데이콤을 통해 가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흔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한 모습으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김 회장을 만났다.

글 신종훈 기자·사진 이혜성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산업 선진국가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물가협회는 동북아 물가정보 네트워크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운(71) 한국물가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보산업중심국가, 경제중심국가, 세계평화중심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세계의 정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정확성에 기반한 정보와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국내에서 물가정보 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난 1965년부터. 당시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구매, 입찰 가격선정 등에 필요한 산물 기준이 전혀 없었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 역시 각종 원자재 및 생산품에 대한 물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공정한 물가조사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김 회장은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을 찾아가 브리핑을 통해 그 필요성을 역설, 지난 1973년 5월 정식으로 한국물가협회를 설립했다. 또 1975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월간 <물가지료>를 창간해 매월 실사위주의 정확한 가격조사와 심의를 거친 20여만 품목의 산물을 지역별, 유통단계별, 거래조건별로 수록해 발간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990년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협회를 설립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국제원자재 정보와 고급경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주)KOREA PDS를 설립해 실시간으로 국제 가격정보를 서비스에 나서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올바른 정보는 신뢰성, 공명성, 정확성 등 3가지 요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정보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물가지료는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정보서비스사업에 대한 목표는 국내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를 아우르는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전세계를 아우르는 정보 데이터뱅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김 회장은 우선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가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가정보 네트워크란 말 그대로 동북아 3국의 물가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일본, 중국의 물가협회에 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데이터뱅크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신용사회’ 구축을 꼽고 있다. 세계 각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용사회의 출발점은 우리나라민의 충·효·예를 중시하는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서로간에 예를 지키는 우리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라고 김 회장은 강조한다. 때문에 김 회장은 현재 충효예삼친운 동반부의 총재직을 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비려한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물가협회가 앞장서서 전세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끝을 맺었다. ☘

한국물가협회 물가정보서비스는?

한국물가협회에서 제공하는 물가정보서비스(<http://www.kprc.or.kr>)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20여만건의 자재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정별, 용도별, 업종별로 상세히 분류가 돼 있어 원하는 품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가지료 뿐만 아니라 적산자료와 상품정보, 업체정보, 국제원자재 가격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유용정보에서는 2005년의 소비자물가동향과 전자제품향, 도매물가, 국내 및 일본의 주요자재물가가격추세 등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시종노동과 공공서비스요금, 취업정보 등은 매일매일 수정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윤은 회장은 “물가협회의 물가정보서비스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바로 우리 서비스가 국내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만 5~6개의 물가정보 서비스가 있지만 무료로 운영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확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보를 정확해야 되고 실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는 오히려 큰 손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물가협회는 앞으로 컴퓨터편린 기자재, 환경관련 기자재 및 신소재, 교육용품관련 자재, 생활관련용품 등에 까지 점차 확대해 DB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발주시 직접 적용도록 지역별 실거래가격과 지역공사비·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DB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을 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실사 위주의 가격조사로 물가·적산 관련 고급정보를 창출해 인터넷과 각종 출판물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협회가 제공하는 물가·적산관련 정보가 각 경제주체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합리적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